



중앙도서관에 나타난
로봇 바리스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 로봇 카페 'b:eat by dal.komm COFFEE(비트)'가 등장했다. 비트는 로봇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음료 제조·픽업 등을 전부 담당하는 무인 카페다. 남궁예은(지리학 2018)씨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과학기술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은화 기자 ha1636@khu.ac.kr

공개된 '주천규정', 갈등 불씨 되나

(총장후보주천규정)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총장후보주천규정(규정) 초안이 지난 5일 공개됐지만,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과 일부 조항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법인과 구성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 출석한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법인으로부터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주천규정위원회(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며 "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11개 구성원 단체에 규정 초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들이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오면 오는 22일까지 있는 그대로 법인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각 구성원 단체들은 15일 까지 관리위원회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평의 측은 "대학평의원회가 정한 11개 구성원 단체에 대평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평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구성원들이 규정을 요구할 땐 녹장을 부리더니, 자신들이 필요한 의견 수렴에는 짧은 기한을 두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관리위원회의 정당성 여부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한 대평의 위원은 "법인이 마련한 규정을 왜 학교와 상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왜 법인 측 권한 위임을 거절하지 않고, 학교가 대평의를 관리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부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행정 지원이며 의견 전달을 위한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평의 측은 지난 11일 법인을 상대로 관련 입장문을 밝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의 공식기관인 대평의는 규정과 관련, 법인 측으로부터 그 어떤 공식 문건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학이 배포한 규정 초안에는 총장후보주천위원회(총주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며 "법인은 즉각 대평의와 규정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평의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규정 초안 제18조 제2항에는 '조

빙위원회가 조빙한 인사에 대해 선 구성원 투표를 통해 추천된 3인의 후보와 별도로 총주위 의결에 따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항은 '총주위가 후보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지 못하거나 3인 미만의 후보 추천 시,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구성원이 합의한 안과 달리, 법인의 의향에 의해서만 총장이 결정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대평의 측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토론과 선거운동이 규정에서 제외된 것, 총주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됐다.

지난 12일에는 학교 측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불만을 제기했던 대평의 소속 구성원 단체는 모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차기 간담회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출제 논의에 다시 갈등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구성원-법인 양측은 앞서 결의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놓고 협의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법인으로부터 규정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앞서 결의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이 지나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4월 중으로 예상됐던 총장 선출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치를 5월 17일까지도 총장이 선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다만 법인 측이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아직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올해도 금지되는 본관놀이…“새내기야 미안해”

이서연 기자 windy5973@khu.ac.kr

【서울】 지난해 교내 업무 방해로 금지했던 '본관놀이'가 올해도 금지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본관놀이 문화를 살리는 다른 행사를 학교와 논의 중이다.

지난해 4월 16일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는 본관 인근 취식 및 음주 행위, 이를바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본관, 도서관, 교수회관 등 본관 인근 공간의 학업, 연구, 행정에 문제를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관놀이는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음식, 술과 함께 여리 가지 놀



이를 즐기는 것의 별칭이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과장은 "학생들이 단합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소음은 학교 업무에 문제를 준다"며 "올해도 본관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서 아쉽다"며 "소음 문제 등은 학생들이 인지하고 규칙을 만들어 서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총학과 학교는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화제 기획을 검토 중이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전면 금지보다는 기간을 정해 본관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학생 지원센터와 생각하고 있다"며 "음주, 배달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줄이면서 본관놀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 여자화장실 '몰카 없음' 애지원 사건 이후 합동점검 실시

김재윤 기자 kju0808@khu.ac.kr

【국제】 지난 겨울방학 국제캠퍼스(국제캠) 애지원 건물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됐다. 이후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된 국제캠 주요 건물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에서 추가로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없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개강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총학, 용인동부경찰서, 총무관리처가 국제캠 주요 건물 여자 화장실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애지원은 국제캠 정문 건너편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과거 기숙사로 쓰였던 건물이다. 2007년 이후로는 우리학교 창업 보육센터와 연구시설, 학군단 등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학교 학생 30여 명과 관계자들이 근로 장학생 및 연구원 등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6월 대학본부가 교내 전체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애지원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학부생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곳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당시 점검을 진행한 총학생회(총학)와 관리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합동 점검은 총학 주도로 주요 학부생 시설만을 살폈다. 학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에 참여했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는 "교내 건물 위주로 진행했던 점검이기 때문에 애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벌어진 연구동은 대학원 시설이니 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총무관리처에 문의하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다.



알림

사령

〈명 정기자〉

강래완(정치외교학 2018)
김재윤(원자력공학 2015)
문하령(한국어학 2017)
박재령(국제학 2016)
배지현(정치외교학 2017)

오진영(관광학 2018)
이다빈(언론정보학 2018)
이서연(사회학 2018)
이은화(경제학 2018)
홍연지(무역학 2017)

교수 칼럼

무의식을 흔드는 '낭만'에 귀 기울이기
전윤한(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정쟁보다 유권자를 바라보라

때 아닌 선거가 학내 화두다. 거교적 관심이 모인 총장 선출이 그라하지만 국제캠퍼스(국제캠) 확대운영 위원회(학운위)에서 선거세칙 개정안을 두고 나온 위원들의 몇몇 발언이 우려스럽다.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는 11월 정기 선거 적용을 목표로 선거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화두에 오른 것은 정책설명회 관련 개정안이다. 중선관위는 정책설명회를 주관하고, 이에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겠다는 내용에 일부 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립의 포인트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자율성이다. 개정을 주도한 중선관위는 정보제공의 채널이 제한된 학내선거 특성 상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가 토론회 참석 여부를 두고 징계까지 주는 것은 후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에 권리가 개입되는 것이라는 반박이 맞선다.

학내 선거는 사회 선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단선화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은 강의실 방문 같은 대면PR이나 팬플릿 의존도가 높다. 학내 언론의 보도가 더해지지만 주목도는 낮다. 각 후보가 유세를 통해 하고 싶은 말만 던지는 가운데 공약과 후보자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에 정책토론회 '강제' 참석 개정안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다. 1년 동안 학교생활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유권자는 최소한 자신이 남부한 학생회 비가 어떤 후보에 의해 어떻게 쓰일지 적극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종이 몇 장과 지나가다 본 인상만 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일부 학운위 위원들이 제기한 후보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의도가 있든 학생의 대표가 되고자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이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 후보의 자율성을 우선하라는 말은, 학생을 위 하겠다는 으레 하는 말까지 공수표라는 반증인가. 그 발언이 이미 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학운위 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개탄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를 두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통해 법제화해뒀다. 유권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해 바른 판단을 돋기 위함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선거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참가는 자율이지만 후보들은 이 소중한 두 세 시간에 사활을 건다.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심지어 '초청대상'이 아닌 군소후보들을 위한 토론회까지 따로 마련한다.

총학생회의 면면이 중선관위를 구성하는 학내 선거의 특성상 특정 선본이나 권력의 개입 우려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학교 유권자들이 이를 좌시할 만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토론회는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다. 학운위 위원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이를 보기보다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돋는 방안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금

폭력 교수 '솜방망이 치벌'에 뿐난 대학가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상습적인 직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제주대 겸직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제주대병원 폭행 교수에 정직 3개월/교수신문, 2019.2.25.) 제주대 송석언 총장은 "겸직교수의 잘못이 무거워 징계가 마땅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과 노조는 대학의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폭력감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교수 특위)가 지난 4일, 학과 학생들에게 '성폭력·감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 주의 주제 - 이공계열 전공기초

'정정기간에 담아라'…불난 집에 부채질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리타임'에서 '이공계 전공기초 정원이 1학년밖에 없어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는 불만의 글이 2주 동안 190여 개의 공감을 받았다. 최근 올라온 게시물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이었다. 폭주하는 불만에 행정실은 "정정기간에 담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정기간에 원하는 수업을 담기는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하염없이 모니터만 바라봤다.

전공기초를 타 학년에 듣는 사유는 많은 학생 수만큼 다양했다. 더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재수 강뿐 아니라 후수과목을 이해하지 못해 돌아온 학생도 있었다.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건 기회 조차 얻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다전공생, 전과생, 편입생 등은 1학년 때 전공기초를 들을 수 없다. 이들은 실제로 전공기초 과목을 듣지 못해 커리큘럼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정기간에 담으라는 행정실의 답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 막막함을 해야될 수도 없다.

전공기초 과목은 기초이기에 중요하다. 미분적 분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학수학을 이해할 수 없다. 기초가 없으면 정교함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는 높은 전문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배움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의 상아탑을 쌓고자 하는 대학에서 기초과목에 학년 제한을 걸어두는 건 후진적으로 보인다.

이 사단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명확한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은 기초과목 수업을 직접 개설하지 않는다. 응용과학대학은 전공기초 수업을 소속 단과대학을 대신해 열어줄 뿐이다. 하나의 단과대학 모든 이공계 학생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다.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언젠가 '레드테이프'라는 말을 들었다.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한,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정기간에 담으라' 혹은 '교원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등 우리학교의 답변은 '레드테이프'를 떠올리게 했다. 학습권 보장 등의 실질적인 것 보다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모습이었다.

책임 주체가 없다면 책임 의식이라도 가져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빠른 조치는 책임 의식에서 나온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정정기간에 담아라'는 행정실의 응답이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개개인을 같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책임지라는 기대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학생과 직원은 같은 소속을 공유한다. 보다 나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교수 성폭력 혐의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해 「인사 규정」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 인권대책위 결정내려/중대신문, 2019.3.11.) A교수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소집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중앙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는 징계위를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며 "다시는 학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강 모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직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예디 대 성추행 강 교수, 교수직 해임 결정 돼/건대신문, 2019.3.7.) 강 모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은 제자 3명을 성추행했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교수는 1월 18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건국대 총학생회 측은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사건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분산되는 관심 속,

중심을 바라봐야 할 때

세시봉

이서림 (기자)



'버닝썬 게이트'가 연일 지면에 오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일이 일파만파 커지며 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시도와 성매매 알선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유명 연예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활동한 영상을 돌려봤다. 심지어는 조사 과정 중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기에도 바쁜 와중에 대중의 관심은 문제의 표면에 쏠려있는 모양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 외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악행이 연일 쏟아진다. 이들의 언행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어느새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나 약물 사용 등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묵직한 문제는 시야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초집이 어긋나자 불뚱도 엉뚱한 곳으로 뛰었다. 몇몇 네이버들은 연예인 채팅방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색어에는 '정준영 동영상'과 함께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언급됐다. 지목을 받은 당사자와 소속사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작 해명하고 죄값을 치러야 할 가해자는 은퇴를 끝으로 도망가려 하는데 피해자들은 언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시선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색출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동시에 사건의 본질이 희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면밀히 조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대화 내용에 고위직 경찰이 여려 차례 언급됐고 클럽 '버닝썬'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버닝썬 게이트'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단순 대상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가해자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리적인 자각이 없었다. 반면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고 2차 가해의 상처가 심해지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권력과의 유착으로 공고해진 구조는 힘의 차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약자를 양산하고 숨통을 조인다.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 터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버닝썬 게이트' 이전에도 주악한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다. 최근 재조명 받는 '장자연 리스트' 또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피해자는 착취당하고 죽음으로 몰렸다. 그렇지만 본질을 흐리는 자극적인 기사와 공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일관락됐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전에도 경험했던 악행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는 동안 자각 없는 가해자들은 또 다시 등장했고 피해자는 늘어만 간다. 분산되는 관심 속에서도 중심을 바라볼 때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우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33-2, FAX 031-204-8121

조급한 조교 제도 개편…현장 한숨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대학원생 조교장학제도 변경의 여파로 이과대학(이과대)이 수업 진행에 곤란을 겪었다. 이번 학기부터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의 근무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장학금 앤수 역시 줄어들었다. 이과대는 바뀐 조교 제도로는 수업을 보조할 조교를 정상적으로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교 발령을 보류한 채 본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생 조교는 본래 S형(장학금 500만원+월 30만원, 주 40시간 근무), A형(500만원, 주 32시간), B형(375만원, 주 24시간), C형(250만원, 주 16시간)으로 장학금 지급액과 근무시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었다. 이를 이번 학기부터 1형(364만원, 주 14시간), 2형(주 7시간, 182만원)으로 간소화하고 장학금 지급액과 최대 근무시간을 모두 축소했다.

개편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하달한 '대학원생 권의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둔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과도한 업무지시와 근무보호 제도의 미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조교의 근무내용과 보상 및 권리 보호

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협약 체결, 조교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명시된 업무 외의 동원 금지, 학습권 및 연구권 보장, 인격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무시간을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도록 대학이나 조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무팀 우지연 과장은 "조교들이 근본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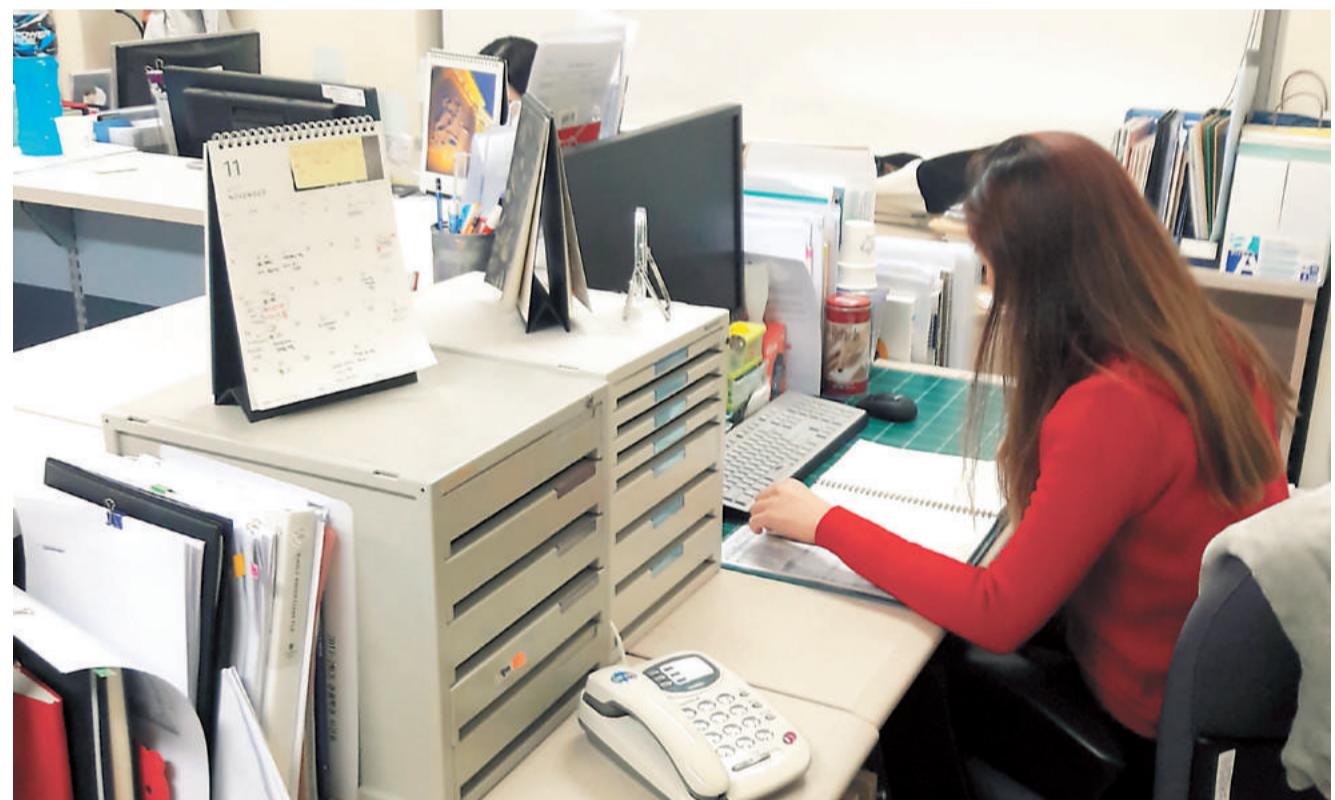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조교로 근무 중인 대학원생 A씨는 "근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일하는 이유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다"라면서 "학업을 위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등록금 총당율이 떨어져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과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과대는 제도 변경의 여파로 학부 수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실험실습 수업의 비중이 큰 이과대 소속 학과 특성상 해당 학문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대학원생 조교의 보조가 필수적이다. 조별로 진행되는 실험실

습을 교수 한 사람이 모두 지도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규정한 변경 제도에 따르면 현행 예산으로는 필요한 모든 수업에 조교를 배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과대의 설명이다.

결국 이과대는 개강 후 지난 2주 간 조교 보조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과대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이과대에서는 조교 제도의 변경이 학부생의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한다"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나 학과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교무팀 우 과장은 "올해 3월 말까지 조교들과의 복무협약서 체결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조급하게 변경이 시행된 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과대의 항의를 파악하고 협의에 착수 했다"면서 "이런 과정 또한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과대는 원활한 수업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교인력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본부와 협의를 가졌다. 이과대 행정실 남정순 계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걸린 문제이니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9학번부터 재수강 제도 일괄 변경돼

배지현 기자 filetisdp@knu.ac.kr

2019학번부터 변경된 재수강 제도를 적용받는다. 학기당 재수강 허용 과목수가 2과목으로 제한되고, 최초 성적 취득 후 재학하는 4개 학기 이내에 재수강해야 하며, 학수 번호가 동일한 교과목만 인정된다. B- 이하 점수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

영대학, 정경대학 경제학과에서 열리지만 단과대학마다 학수번호가 달라 앞으로는 재수강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직원은 "재수강 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가 2016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됐었고 지난해 양 캠퍼스 종학생회와 교무처가 수강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재수강 제도를 조율했다"고 말하며 "고학년이 되고 나서 재수강하는 학부생이 많아 저학년 학생이 성적을 받기 어렵고, 수강신청 경쟁률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경사항은 2019학번 이후 신입생과 2017학번 이후 편입생에게 해당된다.

행복기숙사 사생 95% "재입사 및 추천 의향 있다"

홍연지 기자 lotuspond@knu.ac.kr

【서울】 행복기숙사 거주 학생이 전반적으로 기숙사에 만족하고, 응답자의 95% 이상이 재입사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자가 95%에 달하는데서 명확해진다. 민예지(무역학 2017) 씨는 "행복기숙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시설이 좋은 점도 마음에 든다"며 재입사를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숙사 문화와 공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1.6%와 67.8%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는 시험기간 휴게실 24시간 개방 기간을 1주일 늘리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리학교는 신축 아름원을 포함한 행복기숙사 3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학기부터 매학기 사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입사생 1,049명 중 23.4%인 245명이 참여했다.

총학 홈페이지 새단장, '학생 청원 활성화' 이행

양여진 기자 clcl@kn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총학)가 3월 13일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총학은 학생과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질문 및 건의'와 '논의 안건 제안' 게시판 탐색을 통해 선거 때 제시했던 '학생 청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실 예약과 증명서 발급 등 편의 시스템이 추가됐다.

이 평가는 학교와 총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게시판은 재학생 누구나 건의와 제안을 할 수 있다.

세미나실 예약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또한 새롭게 도입됐다. 학생회관 2층 두련두련 세미나실 예약과 총학 명의로 발행된 협조증 발급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는 3월 말까지 새 홈페이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계획이다. 총학 측은 "의명 신문과 게시판 개설과 유학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역시 홈페이지 개설을 계획 중이다. 국제캠 총학 전원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즈음 정식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0기(남·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1기(남·여)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6(토), 합격자 발표 : 4.25(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27(토)~5.17(금), 합격자 발표 : 6. 13(목)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17(월)~7.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6(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 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02-961-0085~6 국제) 031-201-3271~4

이공계 전공기초는 1학년만 듣나…타 학년 불만 폭주

박재령 기자 kpparr@kn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이공계 전공기초 과목 정원이 1학년에 한정돼 학생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미분적분학, 선형대수 등 이공계열 전공기초 과목을 운용하는 응용과 학대(응과대) 행정실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 학년에게 정원을 열기 어려워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수업을 담지 못한 일부 타 학년 학생들은 행정실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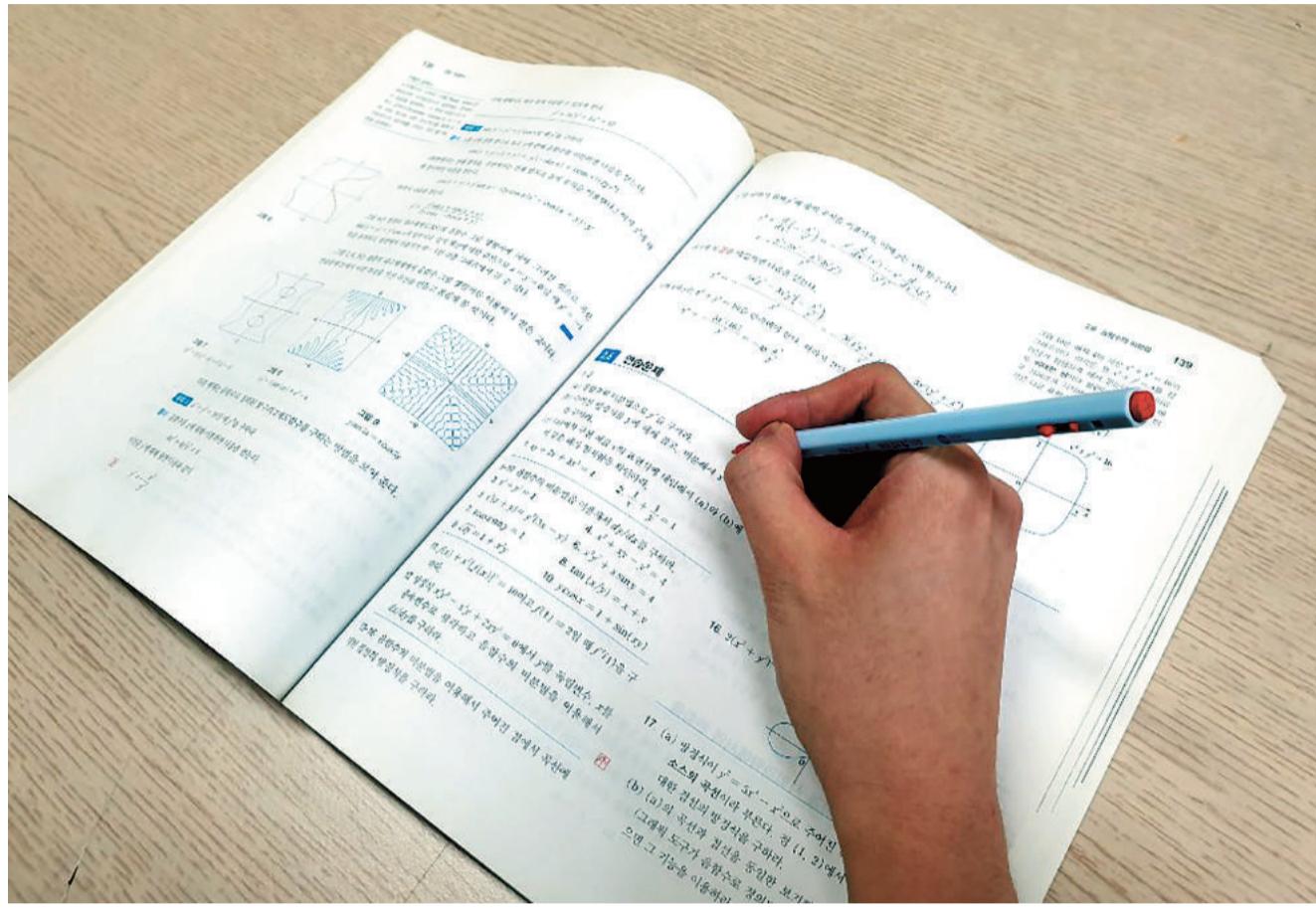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은 지난달 7일부터 13일에 진행됐다. 4학년, 3학년, 2학년, 다전공, 전 학년 순이었다. 신입생은 재학생 수강신청이 끝난 뒤인 지난달 25일과 26일에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이공계 전공기초 과목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열리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리타임'에는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전공기초 정원을 열어주지 않고 정정 기간 때 담으라는 학교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는 불만의 글이 공감을 얻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공계 전공기초는 1학년이 듣는 과목이다. 그러나 재수강, 다전공생, 전과생, 편입생 등 학년이 오르고 난 후에 전공기초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이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선 개강 후 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이공계열로 다전공을 하고 있는 3학년 A씨는 "미분적분학1과 선형 대수가 타 학년에 열리지 않아서 넣지 못했다"며 "안 열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해 기준에 짚었던 시간표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편입생 한승훈(기계공학과 2016) 씨는 "작년 2학기에는 기계공학과 공학수학1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학기에는 미분적분학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며 "동일계 편입생은 전공학점을 인정받지만 나처럼 문과에서 공대로 편입한 학생은 전공기초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수강신청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공계 전공기초 과목은 각 단과대학이 아닌 응과대 행정실에서 관리한다. 수학이나 화학 등 전공기초 과목이 응과대 소속 수업이기 때문이다.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등 이공계 단과대학이 학생 명단과 함께 응과대에 수업 개설 의뢰를 해 수업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응과대 행정실에서는 과다한 수강인원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실 측



특히 이공계 교육과정은 미분적분학 등 전공기초를 이수하지 못하면 심화과목을 이해하기 어렵다

“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 최소화할 것.
”

은 "1학기 수강신청은 4, 3, 2, 전 학년, 1학년 순서이다 보니 타 학년에 정원을 열었다가 1학년 학생이 수업을 못 들을 우려가 있다"며 "1학년 수강신청이 끝난 정정기간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이공계 전공기초를 듣는 1학년의 수가 워낙 많기로 하고 행정 순서 상 1학년은 학번이 늦게 생성돼 명단이 늦게 넘어온다"며 "1학년 인원과 재수강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타 학년에게 정원을 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년 별 수강신청 순서가 다른 2학기에는 최대한 열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정정기간에 전공기초 과목을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학생이 행정실에 요청해도 많은 수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학년 B 씨는 "정정기간에 미분적분학 2명 증원을 해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며 "요청을 해도 소규모로 증원이 이루어지니 수업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공계열의 특성 상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심화 과목을 이해하기 어렵다. 수강신청 문제가 전체 커리큘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B 씨는 "미분적

분학이 공학수학의 선수과목은 아니지만 미분적분학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계절학기에도 미분적분학이 열리지 않아 앞으로의 모든 전공 과정이 꼬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학수학1을 가르치는 허균영(원자력공학) 교수는 "미분적분학을 듣지 못하면 공학수학 후반부 미분방정식을 따라오기 벅차다"며 "이공계열 교육과정은 직렬식이기 때문에 모든 전공 수업은 아닐지라도 특정 부분은 아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마다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분적분학1을 가르치고 있는 C 교수는 "강의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학생이 매 강의마다 5~10명 정도 있다"며 "행정상의 결정은 교수의 권한이 아니라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타 단과대학은 1학년 대상인 전공기초 과목을 타 학년에게 열고 있었다. 국제대학 행정실은 "1학기에는 Economic1 과목을 1학년에 배정하고 Economic2 과목은 타 학년에 배정한다"며 "2학기에는 반대로 운영해 1학년은 물론 타 학년에게도 전공기초 정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인원 파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희망과목당기 등을 고려해 가늠 정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대학도 1학년 대상 전공기초 과목을 타 학년에 열고 있었다. 정경대학 행정실 측은 "일부 학과는 전공기초 과목을 1학년 전용반과 타 학년 반으로 분반해 타 학년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며 "그런 경우에는 학년 별 정원을 만들어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돋는다"고 전했다. 또 국제대학과 유사하게 "1학기에는 1학년에게만 열더라도 2학기에는 타 학년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과도 있다"며 "인원을 재수강생이나 다전공생으로 구분되어 파악하지는 않지만 학년 별 정원을 통해 여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개선을 촉구했다. 한 씨는 "시간강사를 채용해 유동적으로 강의를 증설하거나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전공생 A 씨는 "행정실에서 1학년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면 남은 인원을 파악해서 전 학년 수강신청 때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수강생은 후순위라 해도 어쩔 수 없이 학년이 오른 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다전공생, 편입생은 어떠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섣부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C 교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 사회는 이공계 학생들의 심도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섬불리 전공기초 과목을 대형 강의로 돌리는 방안 등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수강신청에 따라 수업 개설 측면에서도 각 학생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과대 행정실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실 측은 "정원 증설과 같은 사안은 행정 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 학과장님과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강인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준비해 교원 분들과 함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며 "논의를 통해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 자격

1) 2019-1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할 것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 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자급기준

소득분위	자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7. 자급일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우정장학 지원제외자

1)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3)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4) 2019-1학기 휴학자

5) 2019-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2019-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 충족자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재단 구제자

※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단, 등록금 학생이 2019-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 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9-1학기 학업 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5. 선발 및 자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9. 4. 1(월) ~ 4. 23(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9. 4. 24(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 조회"에서 개별결과 확인 가능

3) 장학금 지급 : 2019. 04. 26(금) 예정

6.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7.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지급

8.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해 별도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2019-1학기 목표(학업 및 자기계발)(800자 이상), 2.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3가지 이상 제시(800자 이상)가 작성해야 함

-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없거나 글자수 부족일 경우 탈락처리함

2)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 장학수혜자는 학기 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불임 양식)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자에 한해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19. 6. 28(금)

3)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 중복수혜 불가

5.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강의매매 방지’ 수강신청 개편됐지만…“근본 해결 없었다”

박소영 기자 notold@knu.ac.kr

“우리가 사는 세계 강의 삽니다”, “소프트웨어적 사유 강의 있습니다. 쪽지주세요” 지난달 수강신청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강의매매’ 게시물들이 이어졌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해온 이 같은 강의매매 현상을 두고 학사지원팀이 ‘취소신청지연제도’ 등 주요 대책들을 연이어 도입했지만,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의매매란 수강신청 기간이나 수강정정 기간 중, 학생 서로가 대가를 받고 강의를 사고파는 행태를 말한다. 게시판에서는 판매자·구매자가 서로 가격과 시간을 특정 한다. 판매자가 해당 강의의 수강을 취소하는 즉시 대기하던 강의 구매자가 바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러한 형태의 강의매매는 최근까지도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강의매매는 강의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주로 졸업 필수 과목이나 학점을 잘 주기로 소문난 과목, 사이버 강의가 그 대상이다. 경영학을 복수전공 하는 A씨는 “전공신청이 정말 쉽지 않다”며 “나쁜지 알면서도 원하는 강의가 판매된다면 구매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때 배분이수과목인 ‘인터넷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기술’ 강의는 35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며 학생들의 회의 섞인 목소리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인기가 많은 강의를 일부러 신청해 높은 가격으로 강의를 되파는 악용 사례 역시 이어졌다. 2018학년도 등록 후 휴학한 B씨는 “워낙 비싼 금액에 강의가 거래되다 보니 휴학하는 김에 인기강의를 수강 신청해 판매해 볼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강의매매 성행의 일차 원인은 제한된 강의 수와 수강 인원 속에서 수강 취소를 하면 곧바로 다른 이가 신청 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 때문으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매매를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드러나며 거래의 무분별한 증가가 있었다.

문제가 점차 확대되자, 타 대학들은 강의 매매 금지 조항을 학칙에 넣거나 수강 마일리지제도(연세대), 랜덤 취소 제도(영남대) 등 수강신청제도를 조금씩 개편해왔다. 우리학교 학사지원과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대기 순번제’를 시행해 이를 해결하고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KOR		ENG		공지사항		총합시간표조회		수강신청/강의과목	
• 개설년도	2017	• 개설학기	1학기	• 대학	일부(사용)	• 개설학과	설정대학 강의과목 검색	• 강화별	
• 오월	All	• 수업사간	All	• 교수명		• 연어구분	-----All-----	• 학수번호-부분	
• 개설강좌 목록									
NO.	학수번호-분반	강화별	대상학년	점수	교수명	학급	강의시간/강의실	비수구분	연어구분
1	ECON2011-01	거시경제학1	2	50	정윤승	3.0	월 10:30~11:45 (20405) 수 10:30~11:45 (20405)	04	
2	ECON2011-02	거시경제학1	2	140	이우현	3.0	월 10:30~11:45 (20111) 수 10:30~11:45 (20111)	04	
3	ECON2011-03	거시경제학1	2	60	이우현	3.0	월 10:30~11:45 (20304) 수 10:30~11:45 (20304)	04	
4	ECON2011-04	거시경제학2	2	60	김동복	3.0	목 12:00~14:45 (20301)	04	
5	ECON2011-01	미시경제학1	2	40	박동국	3.0	화 09:00~10:15 (20305) 목 09:00~10:15 (20305)	04	
6	ECON2011-02	미시경제학1	2	50	박현	3.0	화 10:30~11:45 (20302) 목 10:30~11:45 (20302)	04	
7	ECON2011-03	미시경제학1	2	50	정우영	3.0	화 10:30~11:45 (20406) 목 10:30~11:45 (20406)	영어	
8	ECON2002-02	미시경제학2	2	50	Carsten Krabbe Nielsen	3.0	금 13:20~14:15 (20302)	04	영어
9	ECON2002-03	미시경제학2	2	40	김봉규	3.0	월 12:00~13:15 (20300) 수 12:00~13:15 (20300)	04	
10	ECON4001-01	물류논문(경제학)	4	200	박우상	.0	~(1)	04	
11	ECON2009-01	거점마케팅	2	30	김정우	3.0	월 09:30~10:45 (20300) 수 09:30~10:45 (20300)	05	
12	ECON2011-01	계급경제학	2	45	민경식	3.0	목 15:00~17:45 (20310)	05	

자 했다. 수강 신청 인원이 가득 찬 강의에 대기자로 등록해두면, 잔여석 발생 시 자동으로 강의가 신청되는 제도다. 시행 이후 강의매매는 이전보다 확연히 감소했다는 평이지만, 대기자가 없는 강의는 여전히 매매의 대상이 됐다.

대기 순번제가 학내 구성원에게 완전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자, 지난해 제50대 총학생회(총학)는 후보 시절부터 학사제도 개편의 주요 공약으로 강의매매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전 회장은 당선 이후 지난해 5월 열린 소통위원회에서 강의매매 근절을 위한 수강신청 전산시스템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취소 신청지연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이 됐다. 학생 설문 조사와 양 캠퍼스 종학의 합의를 거친 새 제도는, 수강신청 목록에서 강의 평이제를 하면 해당 강의의 잔여 인원이 표시되며 일정 시간 후 수강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취소로 인한 잔여석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어 강의 판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학사지원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개선의 방향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 학사지원팀은 취소신청지연제도를 두고 ‘공정한 수강신청’을 위한 절차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발생한 잔여석에 대해 강의매매를 시도하는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리기 때문에 강의매매의 성공 가능성이 작아져 시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당시 국제캠 학사지원팀 한상 과장은 “기존 수강신청 방식에서 변화하는 부분도 크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이 적을 것이다”라며 “지연 시간을 1시간으로 명시해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신청지연제도가 자리 잡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 결과, 학생들은 강의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수강신청제도 개편 자체에 회의감을 표하는 시각은 여전했다.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강의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애초에

‘강의 수’를 늘렸어야 했다는 반응이다.

정지희(스포츠지도학 2017) 씨는 “수강신청제도를 바꿔도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긴 여전히 어렵다”며 “강의 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주은(골프산업학과 2016) 씨도 “강의 수가 빠져나 부족해 현재 수강신청제도는 손가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연히 원하는 수업을 잡기 힘들다”며 “모두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근본 해결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3일 전 학년 수강신청이 끝난 후 에브리타임에서도 ‘취소 수업을 ‘줍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사이트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수강신청지연제도가 강의매매를 방지하는 것보다 비효율성이 크다”는 반응부터 “전공필수 과목 중 2학년 학생 수만 해도 160명이 넘는데, 두 학기 합쳐 120명만 열리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내용까지 불만이 속출했다.

앞서 우리학교에는 강의 수를 늘려 모두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 지난 2017년 2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선착순 수강신청제도를 개편하고 강의 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였다. 학생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이에 맞게 강의를 공급하는, 일종의 ‘사전 조사’를 거치는 방식인 셈이다. 알맞은 강의 수를 처음부터 열게 돼 대부분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2017년 활동을 마치며 교무처에 수강신청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논의는 미지근한 분위기다. 2019학년도 1학기 후마 재도약을 통해 개설될 ‘수강신청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에 대해 다시 토의할 예정이었지만, 후마 과목 개편 업무와 함께 교무처·총학에 중복되는 수강신청 관련 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우선순위’ 면에서 소외당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개선안을 발표했던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조영숙(의학) 위원은 “결국 선착순 방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더라도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도를 재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및 필진 모집 공고문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및 전문필진 모집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대중화, 과학기술인재양성, 창의인재·영재 육성, 교육 기부, 수학과 학교에서 개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최신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학술신문 ‘사이언스타임즈’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객원기자 및 전문 필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모집 인원
		분야별	공통	
객원기자	과학행사 현장 취재 및 과학이슈 관련 기사 작성	기사 및 글 작성 경험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대졸(4년제) 이상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전문필진	전문 분야별 칼럼 기고 (기초과학/ 의학/ IT/ 항공·우주·환경·에너지 등)	분야별 경력 5년 이상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 경력자 및 글 기고 경력자 • 대학언론사 활동 경력자 • 외국어 능통자 • 주제 이상 원고 제출 가능자 • 과학행사 취재 가능자 (유동적 스케줄)

■ 활동조건

- 활동기간: 학제 발표일로부터 1년
- ※ 참여도 및 활동 성과에 따라 지속 활동 여부 협의 가능
- 원고료는 재단 “원고료 및 취재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별 장당 원고료 산정 및 월별 지급

■ 전형절차

- 서류→면접→최종합격
- ※ 전문 필진은 서류심사

■ 접수방법

- 마감일: 2019년 3월 15일 23:59까지
- ※ 수시모집이나 3월 15일까지 접수자 대상 우선 합격 발표 예정
- 접수방법: 이메일 지원 (scientetimes@kofac.re.kr)

■ 제출서류

- 지원서(자사 양식)
- ※ 자필 서명한 스캔본 이메일 제출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3. 19.(화)
- 면접전형: 2019. 3. 21.(목)
- 최종발표: 2019. 3. 22.(금)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합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및 구비서류 미제출의 책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대상자는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한국의 전통 건축과 기와

참여자 모집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인문학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업 명: 한국 전통 건축과 기와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 11월(일시는 산정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3. 사업 대상: 박물관 및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단체
4. 교육 장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교육 구성

1. 한국의 지붕
 - 단행 허우기 체험
 - 단행 갑방기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단행을 꾸며볼 수 있다.
2. 한국의 와강 만들기
 - 전시를 관람한 후 기와의 형태와 쓰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와강 제작 체험
 - 고구려·백제·신라·여당의 특징을 가진 와강 모양의 석고 방향체를 만들 수 있다.

■ 신청 방법

1.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전화 접수 모두 가능
이메일 접수: khsl3050@knu.ac.kr / 전화 접수: 02-961-0141
2. 신청기간: 기간 중 상시 모집 (제행일 1주일 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총여학생회

총여 운명 가를 총투표, 국제캠 20일 실시한다

문화령 기자 moonbym@knu.ac.kr
김재윤 기자 kju0808@knu.ac.kr

양 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존폐 논의 과정이 사실상 마지막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학교에서 총여 존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지 약 1년 만이다. 오는 20일, 우선 국제캠퍼스(국제캠)가 총여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학생 총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서 한발 앞서 결론을 맺게 됐다.

지난해 말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총여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사퇴했다. 이때부터 총여는 회칙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구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제캠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캠퍼스(서울캠) 신다은(문화관광콘텐츠학 2015)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국제캠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는 출석인원 3분의 20%의 동의에 의해 총여 존폐에 대한 학생 총투표 안건을 가결했다. 연이은 대표자 사퇴로 양 캠퍼스 총여가 마비된 가운데 국제캠이 먼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총투표 안건은 국제캠 총여의 부회장이었던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당시 국제캠 총여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집행부원은 없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직접 제정한 것에 대해 ‘지금 총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총학생회(총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는 지적 사례를 언급 하며 “학생들이 제기했던 많은 질문이 결국 총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총학이 직접 학내 모든 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해도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규모와 예산,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총학이 담당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총여의 정체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며 “총여를 폐지하고 성 인권 문제를 총학 내부 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총투표를 통해 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꾀렸다.

서울캠 역시 지난 2017년 제 30대 총여 양해인(국어국문학 2015) 회장의 사퇴 이후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재차 무산됐다.



오는 20일 국제캠 총여 폐지 여부를 결정할 총투표가 실시된다

오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 폐지가 확정될 경우, 성평등위를 확장·운영하고 관련 세칙 개정할 것

연달아 발생한 후보 미등록 사태에 대해 문과대학 폐미니즘 학회 ‘여행’의 정이랑(정치외교학 2015) 회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총여 후보의 신상을 조사하고 비난했던 타 학교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총여 후보 등록은 용기가 뒤따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무산에 따라 서울캠 총여는 한 해가 넘도록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신다은(문화관광콘텐츠학 2015) 전 비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서울캠도 존폐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총여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일부는 총학에서 흡수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총여 존폐 안건에 대해서는 “총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단체의 근본부터 검토하고자 한다”며 “현재 타 대학 사례와 이와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구체적인 담론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해 인식조사, 의견수렴을 진행해 총투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다”라고 덧붙였다.

총여 존폐 논란은 타 학교에서도 뜨거운 주제다. 최근 후보자 미등록, 남학생 역차별

논란, 자치 회비와 투표권 논란,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 등이 폐미니즘 확산에 따른 백래시(backlash)와 맞물리면서 총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지난해 총여 재건 운동을 했으나 총투표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동국대학교도 지난해 총투표를 통해 총여를 폐지시켰다.

연세대학교는 총투표를 통해 총여 재개편요구안이 가결됐으나, 두 달여 만에 총여 폐지안으로 총투표가 결실시돼 결국 폐지가 확정됐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총여의 입지가 줄어들었듯 총여는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이 매우 모호해졌다”며 “본인 또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계를 몸소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캠 정 회원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총여의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총여 존폐 논란은 총여 그 자체에 대한 사안이라기보다 과거에 비해 역할이 축소된 학생자치기구의 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선거 무산 등이 연기되 발생하면서 총여 존폐를 논의해 할 징후는 계속 됐으나 논의는 다소 느리게 진행돼왔다. 서울캠은 지난해 12월 비대위

원장이 사퇴하며 올해부터 존폐 여부를 논의하게 됐고, 먼저 논의가 진행됐던 국제캠의 경우도 지난해 총학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전 회장은 “투표를 2018년 1학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학내 이슈가 발생했다”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들어서도 총장 선출제 같은 굵직한 이슈와 추석 연휴로 총투표를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총학생회칙 제26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의결을 통해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해 투표 실시를 공고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총여의 형태 역시 변화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비대위 체제를 이어온 국제캠 총여를 대신해 총학은 지난해 4월부터 산하기구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임시 운영해 왔다. 기존에 총여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담당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지난해 성평등위 서정유(전자공학 2012) 전 위원장은 “총여의 고유 복지 사업이었던 고양이버스, 몰카 텁지 등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고 파급력이 강한 총학에서 시행하다 보니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총여가 아닌 별도의 성평등 기구가 총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비단 우리학교만이 아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총여가 존재하지만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석인 상태다.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는 총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들은 총학에서 성평등 사안을 관리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하고 있다.

여성학자 정재원(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는 현재의 대학가 움직임에 대해 “과거 총여는 여성 인권을 위해 조직됐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도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오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 폐지가 확정될 경우, 성평등위를 확장해 운영하고 관련 세칙을 개정하는 등 학내 성 관련 문제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개요

-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 차 예비군 전원
- 훈련장소 :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네비게이션 : 바른고기 검색)
-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4월 8일(월)	전자정보대학 특수대학원(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09:00~18:00
4월 9일(화)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화학공학	
4월 10일(수)	공과대학 : 산업경영공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 체육대학	
4월 12일(금)	공과대학 :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5월 2일(목)	동서의과대학 ·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 전문대학원(동서의학, 국제, 체육)	
5월 3일(금)	국제대학 · 응용과학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5월 7일(화)	교직원 · 일반대학원 · 예술 · 디자인대학	

■ 준비물

-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 (미 착용 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가 가능함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 교통 안내

-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50분)
 -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봉소에 도착

■ 유의 사항

-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
- 대상자 명부는 학과·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2주전 공지)
-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 자는 입소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 예비군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 학적변동(휴학, 졸업 / 수료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학생예비군은 훈련참석 불가
- 기타 훈련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3월 넷째 주(3.18~3.22)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 채용행사, 프로그램 및 기업체 리크루팅

행사명	일시	장소
[롯데백화점·롯데ITB·롯데리조트·롯데월드·롯데호텔]	3.19(화) 10:00~17:00	청운관 1층 1~4번 상당실
롯데백화점 채용설명회	3.19(화) 16:00~18:00	오비스홀 151호
GS리테일 채용면접	3.19(화) 10:00~15:00	청운관 1층 5번 상당실
GS리테일 채용설명회	3.19(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롯데손해보험·롯데슈퍼·롯데제과·롯데푸드·코리아세븐]	3.20(수) 10:00~17:00	오비스홀 151호
현대백화점 채용설명회	3.20(수)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특강] 창업기획 이현우(유동희 교수)	3.21(목) 13:00~15:00	청운관 1층 4번 상당실
[특강] NCS기반 인재지원원의 이해와 준비(유동희 교수)	3.22(금) 13: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중소기업 바로알기 토크콘서트(중소기업진흥공단)	3.22(금) 13:00~17:00	청운관 305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사전 신청(예상인원 100명까지) → 청운관 1층 상당실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현장전시 부스는 해당 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 또는 미래인재센터에서 발급

*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흥미로운 학생활동 및 페어스토리,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 취업상담 및 출 컨설팅 (1)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출 컨설팅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질문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팅 전략 등

■ 컨설팅센터

분야	장소	청운관 1층 상당실	신청방법
외국계기업/글로벌 진출	청운관 1층 상당실	상시	미래인재센터 문의
이력서 및 자소서 청탁	오비스홀 355호	매 10:00~18:00	중央정보시스템
박신경	로스쿨/공기업/공무원	제1법학관 107-2호	서신법학대학
홍성기	직무·기업설명회·면접질문	청운관 1층 5번 상당실	수인사업대학
오신종	대학·직무분석	오비스홀 356호	신경대학
이종구	금융권/대기업	네오르네상스관 330호	원인·원인 대학

* 주의사항

- 상당일 출 컨설팅 불가 (상당 달일 10일 전까지 가능, 흥미로운 회사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달일 2분석 출석하여 지침(필수)

-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담당 교수 참고 비밀

* 2019-1학기부터 학생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운관 상당시간을 컨설팅별로 주회 마련 (위치 : 청운관 1층 2번 상당실)

■ 미래인재센터 SNS -

무의식을 흔드는 ‘낭만’에 귀 기울이기

교수칼럼



전윤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얼마 전 이야기다. 강아지를 맞이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새로운 집에서 긴장했던 탓인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나기를 며칠, 안쓰러운 마음에 잠들기 전까지 쓰다듬어주어 보기도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금세 깨는 바람에 함께 덩달아 잠을 설쳤다. 안쓰러움이 걱정으로 넘어갈 때 즈음, 강아지가 가까이에서 이름을 불러도 모를 만큼 곤히 잠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내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쇼팽의 녹턴 음반을 틀어놓곤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기척이 없어 들여다보니 강아지가 배까지 내밀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저 며칠 많이 퍼곤해서 꽂아뗐어진 줄로만 알았지, 쇼팽의 음악이 강아지에게 안정을 주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역시 녹턴을 틀고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까지만 해도 총총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어느새 방석에 엎드리더니 식사시간 내내 잠든 것이 아닌가! ‘설마, 음악 때문일까?’

확인이 필요했다. 오전 내내 오디오를 끄지 않기로 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오전 내내 한 번도 깨지 않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자세로 잠을 잤다. 그 뒤로도 10번 중 8번은 거짓말처럼 “음악=잠” 공식이 들어맞았다. 정말, 음악 덕분이었다.

쇼팽의 곡은 센터멘탈하고 조곤조곤한 속에 넘치는 낭만이 있다. 한 마디 한 마디 사연이 느껴지는 이야기처럼 아주 짙게 삶이 투영되어 있지 만 드러나지는 않는다. 아마도 내성적인 쇼팽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차분하다. 감정을 강렬하고 여과 없이 전달하고자 했던 베토벤이나 슈만의 곡과는 달리 쇼팽의



음악은 지친 일상에 위로를 선사하고 인간 감정의 깊숙한 곳을 흔들어 깨운다

(사진=중앙일보DB)

곡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한발자국 물러나 조망하고 사색하게 만든다.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베토벤 곡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자꾸만 신경이 귀로 집중되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인데, 쇼팽의 곡은 식사에 더욱 집중을 하게 만든다고 말이다. 강아지에게 숙면을 선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음악은 우리의 심리상태,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누구나 추억을 소환하는 음악 한 곡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만화 주제곡이 되었던, 옛 연인을 그리는 노래가 되었던, 혹은 직접 연주했던 곡이 되었던 그 시절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데에 음악만큼 확실한 타임머신이 또 있을까. 나 역시 늦게 음악을 시작했지만 키스쟈렛의 음반을 들으며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었고, 지금도 키스쟈렛의 곡이 나오면 몇 주 동안 밤을 새며 연습했던 20살의 열정이 떠오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음악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안정감과 위로를 선사하기도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 엄마가 즐겨듣던 음악을 틀어주곤 하는데 신기하게도 장르를 불문하고 뱃속에서 들을 듣던 음악이 나오면 신생아들은 금세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한 백작의 볼

면증 치료를 위해 작곡되었다는 바 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뇌파와 심박수를 진정시킨다는 사실이 몇몇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내게 음악은 특효약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하루 종일 계단을 뛰어다닐 정도로 바쁜 날의 끝에는 꼭 에디 히긴스와 막스 리히터의 음반을 꺼내 듣다. 머릿속 생각들은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신없었던 하루는 절로 정연하게 정리가 된다. 작년,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피아노 소품집을 작곡하고 발매하며 집중했던 단 한 가지의 가치도 바로 “쉼”이었다.

“듣다가 졸리면 언제든지 주무서도 좋아요. 그만큼 이 음악이 편안하다는 뜻이니까요.” 소품집 발매 공연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집중보다는 잠을 권유할 만큼 음악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편안함을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간 감정의 깊숙한 곳, 무의식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깨우는 힘 때문에, 정치와 사회, 비즈니스의 곳곳에 음악이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했고,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음표 속 깊숙이 메시지를 새긴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재즈가 흑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그 옛날 청소년들을 한 군데 모은 것도, BTS의 음악이 전세

계를 뒤흔든 것도 아마 연설과 설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음악의 힘일 것이다.

“음악은 순간의 공기를 바꾼다.”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음악 디렉팅을 할 때마다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다. 유명 호텔들은 유행하는 가요나 잔잔한 피아노 음악 대신 신비로운 느낌의 일렉트로닉 사운드, 라운지 스타일, 아주 동양적인 화음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한 음악 등, 그들만의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경우가 많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외부와는 완벽히 분리되는, 그래서 세상 모든 번뇌를 잊게 만드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이다. 어떤 음악은 구매욕을 더욱 자극하기도, 어떤 음악은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 공간 회전율을 높이기도 한다.

바로 옆에서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숙면을 취하는 강아지를 보며, 새삼 음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강력한 힘을 실감한다. 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의 교수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언어로 음악의 가치를, 위로를, 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본다. 오늘 하루 주변에서 들리는 음악에, 혹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조금 더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참여마당

경희동행 소모임 전 단장
정재원(일본어학 2017)



함께 있어 더할 나위 없었다

삼수 끝에 어렵사리 대학에 합격 했으나 내가 꿈꾼 대학 생활과는 동떨어진 현실. 그때서야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광고가 잔뜩 쌓인 메일함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대외활동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찾아보았다. 대학에 오기까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는 교육봉사를 택했다.

‘서울동행프로젝트’가 말하는 ‘동행’은 ‘동생행복’의 줄임말이다. 대학생이 초, 중, 고 ‘동생’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봉사활동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혜자인 ‘동생’이 우선이었지만 현재는 대학생의 성장에도 초점을 맞춰 봉사자 성장프로젝트의 의미도 갖는다. 물론 ‘동행(同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같이 간다’는 이 말에 나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교류를 통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낸다는 의미도 보태고 싶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생활비,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과외를 한다. 과외비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내주는 돈이다. 하지만 그런 금액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출발이 평등하지 않은 채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동행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 우리 대학생은 입시를 가까이서 겪었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대학생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수혜학생들은 대학생 봉사자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학업에 대한 동기를 얻게 된다.

성장하는 기쁨

함께하기에 더욱 빛나는 순간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며 교육봉사를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완전히 잊어버린 입시 내용을 다시 봐야하는 수고로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내가 동행을 아직도 못 놓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을 만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발견이었다. 그 누구와도 친해지기도, 어디에도 정붙이기 힘들었던 그 때, 나와 같이 ‘동행’ 해준 선배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지난 2년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작년 여름, 전공연수에서 탈락하고 심기일전으로 도전한 네팔 동행해외봉사는 내 인생에서 있을까 말까한 값진 기회였다. 각 지역에 퍼져있는 다른 대학생 봉사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교육방식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 더운 여름날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며 준비한 프로그램, 새로운 문화, 뜨거운 네팔 햇빛 아래 열기를 잊게 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경험과 인내심, 소중한 사람들을 얻고 간다. 나를 스쳐간 여러 사람 중 어떤 이는 정말 그렇게 스쳐지나갈 수도, 어떤 사람은 같이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같이 고충을 털어 놓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학친구가 되어있었다. 자, 당신들도 나와 함께 동행(同行)하지 않을 텐가.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표지판 없는 캠퍼스…“어디로 가야하죠, 선배님?”

이다빈 기자 davin311@khu.ac.kr

새 학기 캠퍼스 내부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구성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물 위치와 건물명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상태로 방치돼 신입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단과대 건물 현판이 대부분 한글이나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까지도 불편을 느끼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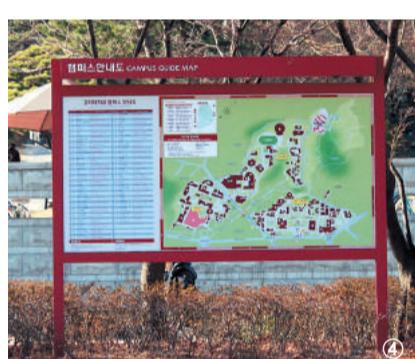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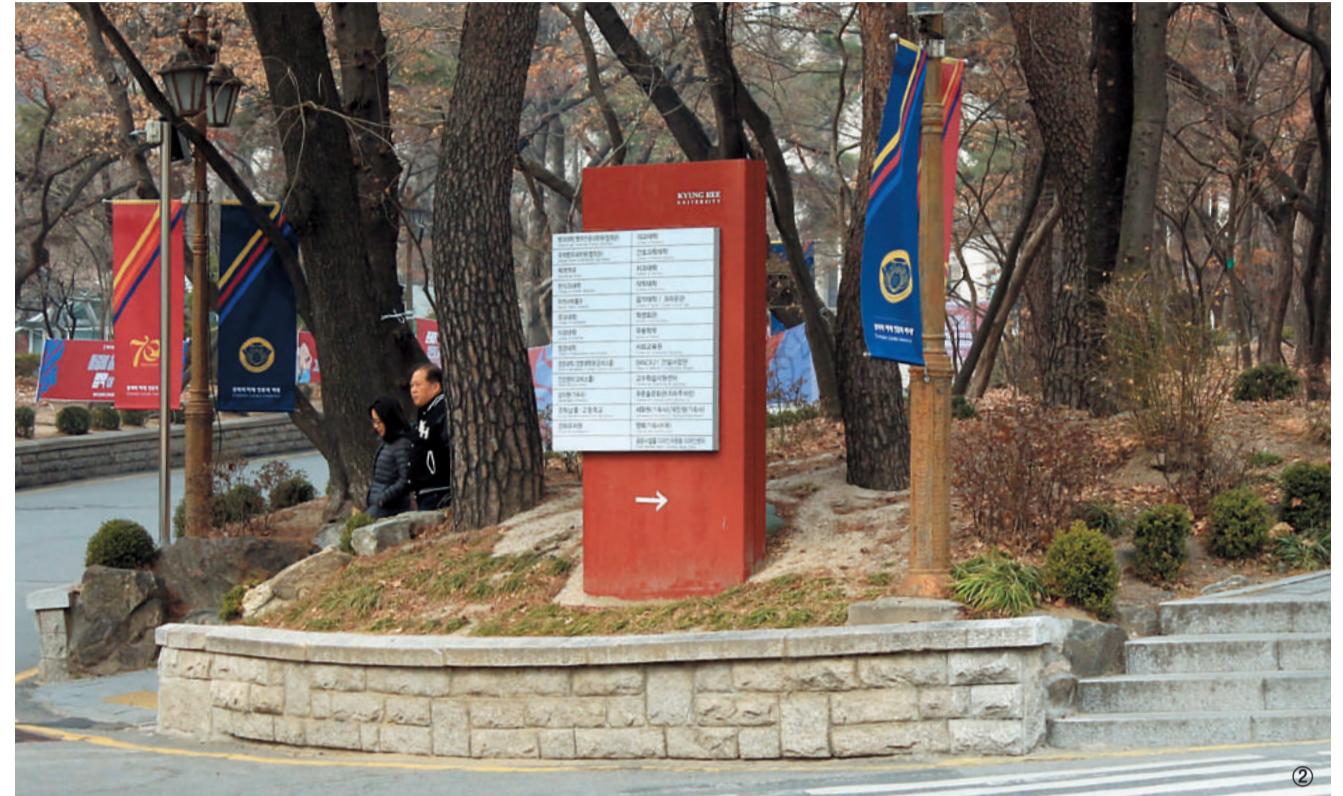
우리신문은 지난 2016년 교내 표지판 문제에 대해 다뤘다.(실제 건물 위치와 따로 ‘노는’ 건물 이름 표시판… 방문객 “건물 위치 찾기 어려워 불편”/대학주보 온라인 2016. 2. 3) 당시 대학본부 측은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신입생이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표시’다. 이달 우리학교에 입학한 박기범(언론정보학 2019) 씨는 “입학식 날 처음 학교에 방문했는데 캠퍼스 약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도 조악해 길을 찾는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입학 이후엔 후문으로 등교하는데, 경경대학으로 이어지는 쪽문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정문에 비해 물어볼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단과대학 현판마저 눈에 띄지 않아 플래카드를 보고 찾아갔다”라고 토로했다.

교내 표지판의 ‘불친절함’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자로만 표기된 경경대학의 작은 현판 이외에도, 스페이스21 사업을 통해 최근 완공된 건물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띠는 현판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복합 표지판은 건물명과 상관없는 모호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크라운관처럼 단과대학 이름만을 표기한 단순 팻말만을 두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문 부근의 표지판 부재는 방문객의 불편함을 부르기도 한다. 서울캠 주차 요원 A씨는 “정문에 학교와 경희의료원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병원으로 갈 차가 교내로 잘못 진입하는 차량이 자주 발생한다”라며 “건물 위치와 길을 못 찾는 차량들이 있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뺏기게 된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캠 면적보다 약 2배 정도 넓은 국제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캠 내부 예술·디자인대학, 국제대학, 공과대학은 눈에 띠는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행로 상 존재하는 복합 현판의 화살표도 방향이 틀리거나 불분명



- ① 청운관 표시가 한자로 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은 건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② 서울캠 표지판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
- ③ 한국외대 정문 안내소 건물 옆에 종합 안내 도가 있다.
- ④ 고려대는 넓은 캠퍼스에 걸맞게 캠퍼스 종합 안내도를 구비하고 있다.

해 위치 파악이 쉽지 않다. 여러 수업이 복합적으로 열리는 글로벌관 표지판 역시 전무하며, 외부 방문객이 자주 찾는 중앙도서관은 어디에도 건물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임재희(골프산업학 2015) 씨는 “표지판이 주는 정보가 애매하고 광범위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했다”며 “신입생 시절 아무 건물도 모를 때 표지판이 아닌 선배의 말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건물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대학 정보 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3,963명에 이어 2018년 4,626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반 시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인 교양 수업이 이뤄지는 서울캠 청운관 입구는 영어로 된 표기가 없이 한자만 적혀 있어 새 학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제는 상황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문과대학, 호텔관광대학, 오비스홀 등 다수의 단과대학 건물의 입구 표기는 한글로만 기재돼 있다. 황정남(정치외교학 2013) 씨는 “최근 멕시코 유학생이 제2법학관 위치를 물어왔는데, 건물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건물명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 결국 직접 데려다 줬다”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온 교환학생 멜라니씨는 “다수의 교환학생은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다”며 “한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찾기가 힘들다”며 “유학생들은 한국어 성적이 아니라 영어 성적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우리학교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등의 ‘한국어 트랙’뿐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공인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영어 트랙’을 통해 얼마든지 입학이 가능하다. 교환학생 역시 상대 측 학교의 추천만 있다면 ‘영어 수업 수강자’로 분류돼 재학이 자유롭다. 이들은 고스란히 캠퍼스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학알리미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고려대는 교내 건물 위치 파악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팀은 “학교 정문에는 캠퍼스 맵이 있고 곳곳에 건물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외국인 학생뿐 아니라 신입생들에게도 영어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는 캠퍼스 맵을 입학 할 때 나눠준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역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친절한 안내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외대 정문 안내실 직원은 “정문 안내실 앞에 캠퍼스 전체 지도가 있고 영어가 가능한 안내 요원을 배치해 외국인 유학생이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집단의 자구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표지판 부재로 인한 건물 위치 파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총유학생회 이혜영 회장(조리·서비스경영학 2014)은 “신입생에게 단과대 별로 건물 사진을 찍어서 번역한 지도를 만들어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공지를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이전 총유학생회부터 건의를 해 왔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반적인 미비함을 두고, 대학본부는 캠퍼스 별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캠 총무팀 김동건 계장은 “시설물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교내 디자인 센터에서 설치물 공공디자인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완성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예전 디자인은 제거하고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안내판을 제작 중”이라고 현재 진행 상황을 덧붙였다. 해당 표지판 디자인 업무를 처리 중인 공공디자인센터 측은 “차선이나 길안내는 아직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요청 받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캠 표지판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팀 측에서는 “표지판이 불편하다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지는 않다”며 당장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전했다.



Global Collaborative 2019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9.07.05 ~ 08.01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8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9.03.11 ~ 05.1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c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